



인도네시아

신흥국 전략

인도네시아, EM 지위 유지됐지만 강등 리스크는 여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MSCI, 인도네시아 증시의 EM 지위 유지에 대한 판단 11월로 연기

MSCI는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인도네시아 증시의 이머징(Emerging) 마켓 지위에 대한 검토를 11월 리뷰까지 연장했다. MSCI는 연초 인도네시아 증시의 투자 적합성(investability)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시장 접근성 제약, 낮은 유통주식 비율, 지분구조 불투명성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최소 유통주식 비율 상향(7.5%→15%)과 주주 정보 공개 요건 강화(공개 기준 5%→1%)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즉각 발표하며 대응했다. MSCI는 금번 리뷰에서 정부의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장 전반에서 일관되게 이행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1월 재검토까지 강등 리스크와 제도 개선 기대 공존, 증시 상단 제한될 전망

이번 결정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11월 리뷰까지 충분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프론티어(Frontier) 마켓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이번 이슈는 인도네시아 증시 자체의 구조적 신뢰도와 연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도 개선안의 실제 이행 여부와 시장 접근성 및 가격 형성 신뢰도 개선 효과를 확인한 이후 비중 확대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전까지는 관망 기조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수급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담은 환율 측면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이미 연초 대비 6.7% 상승하며 주요 신흥국 통화 대비 가장 큰 절하 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제한될 경우 루피아화 약세 압력은 한층 심화될 수 있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5월 말 기준 1,449억 달러로 약 2년래 최저치까지 감소한 만큼, 환율 방어 여력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질 전망이다. 루피아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환차손 우려와 환헤지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망 기조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 증시는 11월 MSCI 재검토 전까지 강등 리스크와 제도 개선 기대가 공존하는 구간에 머물 전망이다. 제도 개선의 실제 이행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외국인 수급 회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율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증시 상단은 제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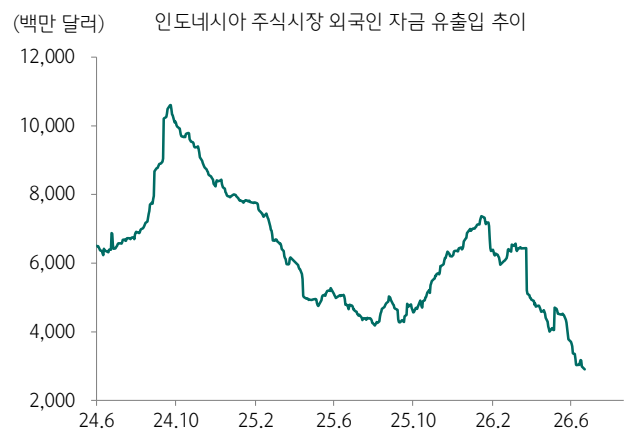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도표 1. 인도네시아 IDX 종합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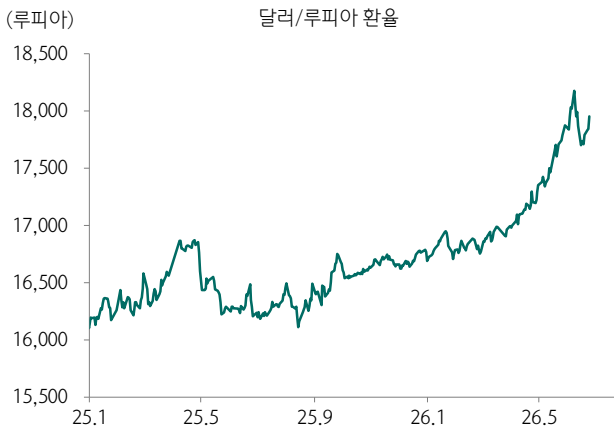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인도네시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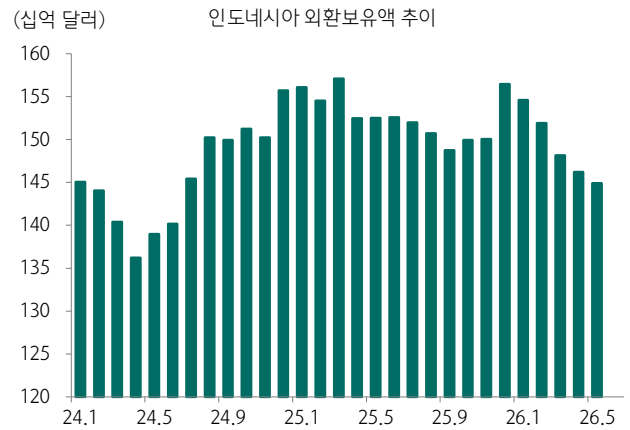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달러/루피아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